

#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1년 7월 18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 기 원 ..... 인도자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시편 89:35-37)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다시금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주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46장 ..... 다같이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이사야 7:1-9 ..... 인도자**

- 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 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 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 7 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 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설 교 .....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620장 ..... 다같이**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1-9)

본문은 BC.734년 경에 남유다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다.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웃시야의 손자였고 요담의 아들이었다. 아하스는 조부나 부친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으며 친앗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었다. ▶당시 근동지역은 앗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앗수르가 바벨론과의 오랜 전쟁으로 권력 공백이 생기자,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해서 앗수르에 대항했다. 무거운 조공을 바치고 있던 두 나라가 의기투합하여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는데 유다의 아하스에게 동맹을 강요했다. 하지만 아하스는 동맹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침공했다. 유다는 겨우 예루살렘만 지켰을 뿐이고, 군사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가와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2절). ▶사람의 기본 욕구 중 하나가 안정감이다.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이민을 가는 것도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라도 흔들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주변에 많다. 어떤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삶이 요동치면 신앙도 요동친다.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의 전략은 우리 마음과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욕심과 유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든다. ▶한없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9절)는 것이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굳게 서야만 한다. 방법은 믿음이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믿다’와 ‘서다’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 믿음은 우리를 서게 만들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14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높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환란 속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도, 병원 수술대 위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적이 에워싼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 환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약한 나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 코로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 확진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코로나뿐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전염병의 발현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 정말 우리는 예측불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역사는 발전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 발전이나 문명적 발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더 불안정해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